

누가 크나?

Who Is Great?

누가복음 9:46-48

그리니치 한인교회

2013년 10월 27일 김서하 유아세례 설교

⁴⁶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⁴⁷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⁴⁸저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것이 큰 자니라.’

약한 자로 세상에 옴

사람이 태어나 자라는 과정은 참 수수께끼 같습니다. 생물학적으로도 신비롭기 짝이 없습니다만 사회학이라는 관점으로 보아도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서로 더 가지고 더 누리려고 겨루고 싸우고 죽이는 세상입니다. 제 욕심을 채우려고 빼앗고 짓밟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신술도 배우고 이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총 같은 무시무시한 무기도 사 놓습니다. 그런데 이 험한 세상에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옵니까? 어린아이, 갓난아기로 옵니다. 가장 약한 자로, 자기를 보호하기는커녕 그냥 두면 혼자 생존할 능력조차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옵니다. 이거 우리가 연구한 방법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험한 세상에 그렇게 보내십니다.

그냥 보내시지는 않지요. 가장 약한 자로 보내시는 대신 가장 든든한 보호자의 손에 보내십니다. 누굽니까? 부모지요. 부모가 서로 사랑해 자녀를 얻고 그렇게 얻은 자녀에게 부모가 함께 사랑을 쏟아 붓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다칠세라 포대기로 싸고 안을 때도 조심조심 안습니다.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위험하다 싶은 것들은 다 멀리 치웁니다. 배가 고프다고 울면 젖을 물리고 똥을 싸면 기저귀도 갈아주고 아이에게 가장 좋은 환경, 그러니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포근한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부모가 다 아이를 위해 애쓰지만 아이를 지켜 보호하는 일은 특히 어머니가 합니다. 몸에 아홉 달 동안 품어서도 그렇지만 젖을 먹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이가 가장 약할 때 곁에서 가장 큰 힘이 되어 주는 사람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그런 말을 하지요. 어머니가 왜 강합니까? 아이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약하고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머니는 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힘이 센 게 아니지요. 사랑입니다. 어머니는 무한한 사랑으로 아이를 지켜주고 키워냅니다.

누가 더 높은가

오늘 본문에 보니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크냐 하는 다툼입니다. 누가 키가 크냐, 누가 덩치가 크냐, 그거 아닙니다. 누가 더 훌륭하냐, 누가 더 서열이 높으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아마 아닐 겁니다. 필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이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저희 셋만 늘 가까이 데리고 다니시니까 높다는 느낌이 좀 들었을 겁니다. 불과 얼마 전에는 예수님하고 같이 산에 갔다가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모습까지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경험했으니 이젠 격이 완전 다릅니다.

그런데 본문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더 높은지 말다툼이 생겼는데 예수께서는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보시고” 다시 말해 “그들의 마음의 변론을 보시고” 하는 말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말싸움에 끼지 않은 제자들도 마음에는 다 같은 생각이 들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감히 베드로 자리를 탐내지는 못해도 그래도 세 제자 다음쯤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다는 소립니다.

서로 겨루는 겁니다. 두 주 전에 살핀 그 비유 말씀처럼 남보다 높아지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품으면 결국 어떻게 된다 하셨습니까? 내려간다 하셨습니다. 잘난 척하다가 망신당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내가 잘난 줄 알았다가는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형편없고 얼마나 못되고 얼마나 더러운지 그걸 알아야 하나님이 불쌍하게 보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함

예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곁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यो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누가 높으나 싸우고 있는데 뜬금없이 어린아이는 왜 데리고 오셨습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아주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받는 그런 대우는 꿈도 못 꾸니다. 누가 높으나 싸운다면 이런 아이들은 거의 꼴찌가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아이를 영접하면 그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하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관점을 바꾸고 계십니다. 누가 높으나 하고 싸우는데 주님은 이런 하찮은 아이를 받아주면 그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아이가 나하고 같다, 너희 선생이고 너희 구주인 나하고 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 높으나 그걸 따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하는지 그걸 가르치십니다. 내가 높은지 낮은지 그건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가장 시시해 보이는 아이 하나라도 따뜻하게 받아들이어 주면 그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주님을 영접하는 건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영접을 받아야 할 자

다른 본문에서는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 하셨습니다 (마 18:1-5). 아이처럼 된다는 게 뭘니까? 아이처럼 순박하고 착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아이는 착하지도 않고 순박하지도 않습니다. 아이의 특징은 약하다는 것입니다. 제 힘으로는 아무 것도 못하고 그저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도 없는 게 아이들입니다.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어야 된다는 말씀도 많이들 오해하지요. 아이는 겸손하지 않습니다. 아이처럼 낮추는 것은 나 혼자서는 아무 것도 못하는 내 처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이를 영접한다는 이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는 영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접을 받아야 하는 사람임을 가르치십니다. 누가 크냐 따질 계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까 그걸 생각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보아 주시지 않으면 영생이고 뭐고 없는 이런 처지에, 내가 훌륭하다, 너보다 잘났다, 그런 것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 하시는데 예수님 말씀은 그런 불쌍한 아이를 잘 거두어 주라는 게 아니고 내가 바로 그런 아이하고 같은 처지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서로 받아주고 감싸주면 그제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가장 연약한 자

예수님의 결론이 뭘니까?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곁에 있는 아이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가장 작은 그이, 너희가 볼 때 정말 변변찮은 이 아이야말로 큰 자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누가 크냐 다투었지요? 그리스어 원문은 비교급도 되고 최상급도 됩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가장 크냐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결론을 보면 작다는 말은 최상급을 쓰십니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 이가.” 그냥 “가장 작다” 해도 되는데 “너희 모든 사람 중에” 하는 말을 덧붙이셔서 강조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통틀어 가장 작은 사람을 가리키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크다 하실 때는 비교급도 최상급도 안 쓰십니다. 원급을 쓰십니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크다” 하십니다. 주님은 한 마디로 제자들이 하는 그런 말다툼이 말도 안 되는 거라 가르치십니다. 천국에도 큰 사람 있습니다. 스스로 부족하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줄 깨달고 연약한 줄 아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큼니다. 천국에는 큰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더 큰 사람”이나 “가장 큰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큰 이유가 “우리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이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작은 사람 큰 사람

우리 주님은 뒤집어엎는 재주가 보통이 넘는 분입니다. 누가 크냐 다투는 제자들에게 가장 작은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가장 작은 사람이 크다 하십니다. 누가 작으나, 그건 겨루어 볼만 합니다. 누가 더 못났나, 누가 더 죄인이나, 누가 더 형편없나, 그건 우리 해볼 만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흙탕에 구르다 온 사람, 시궁창에 떨어졌다 온 사람, 몸에 더러운 똥을 묻힌 사람,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내기해 보면 재미있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 더 크냐, 이건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우리가 크게 된 건 오직 하나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도 작고, 못나고, 부족하고, 형편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껴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큰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인데 뭘 자랑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 내놓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래도 모태 신앙이다, 내가 교회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내가 헌금액수가 얼마인데,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내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데,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답은 “아니올시다”입니다. 은혜를 모를 때 그런 자랑을 하게 됩니다.

어린아이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갓난아기로 보내시는 이유가 뭘겠습니까? 사람이 본디 그렇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갓난아기보다 더 힘없고 부족한 자가 됩니다. 사람의 본 모습을 이야기할 때 시뻘건 핏덩이라는 말을 하지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도 쓰고 배운 것도 있어 어깨에 힘도 주지만 막 태어난 갓난아기가 바로 우리 본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갖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를 보낼 때 가장 약한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모 아래, 특히 어머니 몸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날 때부터 전적인 보호를 받고 날 때부터 백 퍼센트 의지하면서 시작하도록,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사랑을 몸으로 익히도록, 아직 생각할 줄도 모르고 의식도 제대로 없는 그 순간부터 사랑이라는 걸 먹고 자라도록 하셨습니다.

잘난 척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우리가 다 구원을 필요로 하는 그런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이를 영접한다는 표현을 통해 우리가 그렇게 영접을 받아야 하는 자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거듭 깨닫게 해 주십니다.

김서아 유아세례

이제 조금 뒤에는 김상범 집사님, 최수온 교우님의 딸 김서하양의 유아세례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유아세례는 우리가 아는 바대로 하나님을 믿는 부모 아래 태어난 자녀는 날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아이를 생명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이 유아세례식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봅니다. 가장 연약한 존재로 보내셔서 가장 든든한 보호막인 부모를 통해 사랑을 배우게 하십니다. 이미 나이가 들어버린 우리도 아이가 하나 태어날 때마다 그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생각합니다. 내가 바로 서하구나, 내가 바로 이 아이로구나, 내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자로구나, 하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유아세례는 가장 작은 아이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순간입니다. 뜻 깊은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이를 지금도 찾으십니다. 그런 아이를 불러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은 서하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인받게 된 것을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서하하고 똑같이 어리고 부족하고 부모의 도움이 절대 필요한 우리를 또한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큼니까? 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큼니까? 우리가 다 큰 사람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권수경 목사)